

특별기획



김제시농업기술센터, 마을학교 운영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한석)는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김제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관내 초등학교 1,200여명에게 김제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2014년부터 3년째 지속적으로 운영 중인 김제마을학교는 우리지역 농촌마을의 전통자원과 어르신들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마을별 특색 있는 체험프로그램으로 개발 농촌마을을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정겨운 농촌문화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농촌 체험 시간을 함께 함으로써 한박웃음을 짓는 아이들과 즐거워하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삶의 활력소로 웃음이 가득하다.

김제마을학교는 연초에 5개 마을과 3개의 교육농장을 연계 공모사업으로 선정 하였으며 백산면 수목골마을과, 성덕면 남포마을, 금구면 외갓집마을, 용진면 황포마을, 부량면 벽골제마을이며 연계 체험농장은 토립도에, 남양농장, 주근개밭가농장 등이 참여하여 6월 현재 17회 600여명의 마을학교 체험을 진행중에 있다.

성덕면 남포마을의 운영자 김영근씨는 학생들이 마을을 찾을 때면 손자/손녀가 오는 것처럼 반가워 체험 날이 기다려진다고 하였다.

금구면 외갓집마을 운영자 최승일씨는 쌀을 도정하는 정미소에 관한 이야기와 토마토 따기, 고추 따기 등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감쪽 퀴즈로 선물도 준비해 외갓집마을 이맘때쯤이나 넉넉함을 더하고 있다. /김제=곽태 기자

정읍시, 노인배려 교통환경 구축

정읍시가 교통약자인 노인 교통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노인이 편리하면 모든 사람도 편리하다"는 자세로 노인을 우선 배려한 교통환경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노인보호 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 이상이 고령자로 나타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교통환경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노인보호 구역 개선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5천만원을 들여 북부노인 복지관 1개소에 CC TV 2대를 설치하고 교통안전 발광형 통합 표지판 등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1억원을 들여 북부노인 복지관 등 2개소에 통합 표지판과 차선 분리대 설치와 함께 노면 표시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어 이달에는 입암면 운누리 행복복지관, 크로버 실버빌 신대인을 등 지원 등 노인요양시설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해 1억원을 들여 통합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물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은 고령친화 도시 건설에 주력하고 있는 시장방향과 뜻을 같이하는 사업으로, 노인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사고방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건축과직원들, 농촌돕기

정읍시 건축과 직원들은 지난 12일 농촌일손 돕기에 구슬땀을 흘렸다.

이들 직원들은 휴일에도 불구하고 정읍면 남산마을 김기숙씨의 하수오방(1,500㎡) 말뚝박기와 매설(1,200㎡) 수확을 도왔다.

직원들은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주말을 반납하고 봉사활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정읍시 기술봉사단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에 앞선 11일에는 상교동 진산길 최모씨 집을 찾아 전기와 난방·도배·장판 등 주거시설 보수 및 안전점검 활동을 펼쳤다. /정읍=김대환 기자

40년 만에 피운 행운꽃 '길상천'

부안군 진서 피빛뜨락 들꽃농장 개화 방문객 발길이어



멕시코가 원산지인 길상천

행운과 복력의 여신 길상천씨가 전북 부안군 진서면에 강림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길상천씨는 귀부인의 형상으로 허리에는 행운의 열쇠를 꽂고 손에 북 주머니를 들고 세상에 행운과 복력을 배분다. 첨단과학기술로 우주공간을 날라드는 소란스러운 때에 이 무슨 시대착오적인 이야기인가?

지금 부안군 피빛뜨락 들꽃농장에서 40년 일생에 마지막 힘을 끌어 모아 꽃대를 올린다는 신인장 길상천이 일생 최대의 꽃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

일생에 단 한번 꽃을 피우고 생명을 마친다는 이 식물은 40년 이상을 기다려 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는 동안 꽃을 보는 것 자체가 큰 행운이기 때문에 이를 또한 길상천(사신)으로 정해졌을 것이다.

멕시코가 원산지인 길상천은 용설란의 한 품종으로 보통사람의 범접을 허락하지 않을 것처럼 날카롭고 무시무시한 가시로 당당한 꽃대가 올라와 꽃망울을 터뜨릴 때까지 1년여를 요구하는 도도한 식물이다.

지난 겨울 꽃대가 나올 조짐이 보이면서 가졌던 벅찬 기대와 설레임

은 60여일 만에 그 기세가 너무도 거세 온실 천정을 뚫고 자라면서 농장주인 김창환씨는 꽃대를 받치는 지주대를 설치하기도 하고 온실바닥을 2m가량 파서 자라나는 꽃대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고로운 작업을 즐겨온 마음으로 하였고 급기야 온실 밖으로 옮겨야 할 만큼 꽃대가 자라자 아는 사람들을 불러 길상천을 밖으로 옮길 때는 그 키가 4m를 훌쩍 넘겼다.

주인은 벅찬 감동을 혼자 담아두기 힘들어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자, 입 소문을 타고 행운과 복을 받으러 부안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변산반도의 깊고 푸른 산 능선을 타고 경쾌한 드라이브를 하면서 수려한 부안 마실길의 노정에 행운과 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진서 피빛농장 길상천도 볼 수 있다면 평생 받을 복을 한꺼번에 받는 황제수일 것이다.

부안은 예부터 천혜의 자연경관으로 찾아오는 사람마다 복을 퍼주는 땅이다. 부래만복(扶來滿福)의 증거가 지금 길상천의 개화로 또 한 번 입증된 축복의 땅으로 복을 받을 것이다. /부안=이옥수기자



부안농협이 휴일을 반납하고 관내 부안읍, 동진면, 백산면, 주산면 일대에서 농촌일손 돕기를 펼쳤다.

부안농협, 양파·마늘수확 도와

부안농협(조합장 김원철)이 농번기를 맞아 일손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농가, 고령농가, 부녀자 농가를 대상으로 농촌일손 돕기에 나섰다.

지난 11일에 휴일을 반납하고 영농자제를 판매하는 필수요원을 제외한 65여 명의 직원들은 관내 부안읍, 동진면, 백산면, 주산면 일대에서 농촌일손 돕기를 펼쳤다.

이날 직원들은 부안읍 모산리 류 정연 소유 마늘 8,000㎡수확 동진면 당성리 최기환 소유 배 1,100㎡ 봉지 씌우기, 주산면 사신리 김 용래 소유 양파밭 4,500㎡ 수확, 백산면 원천리 양순양 마늘 3,000㎡수확하는 등 구슬땀을 흘렸다. /부안=이옥수기자

류 정연조합원(부안읍 모산리)은 "농촌에는 노령화되고 영농가능인력이 부족하여 일손 구하기가 어렵워 손이 없어서 마늘수확을 하지 못했는데 조합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휴일에 마늘수확을 도와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린다면서 고마움을 표하였다.

한편 김원철조합장은 "갈수록 농촌에는 고령화하면서 농촌일손이 필요로 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앞으로 "적기에 영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손이 필요한 영세농가, 고령농가, 부녀자농가에 시간이 허락 되는 한 지속적으로 일손돕기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김제시는 2016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5,034건에 20억2,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 및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두차례 부과되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전액 부과된다. 올해 2016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에게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납부방법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 CD/ATM(현금지출기)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www.wetax.go.kr), 지방세 ARS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난 5월부터 납세자의 편의 시책으로 추진한 지방세 ARS 간편 납부시스템이 구축되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로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있다.

박현 세정과장은 "납기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또한 이번달은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신청을 하지 못한 납세자는 6월 중에 연납신청을 하여 5%의 절세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제=곽태 기자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은 '최근 열람실 4개소 전체에 소음중화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정읍시립중앙도서관, 소음 중화시스템 설치

주변소리차단 집중력 향상

정읍시립중앙도서관(이하 시립중앙도서관)이 소음 중화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립중앙도서관은 "도서관을 찾는 시민들에게 도서관 내 소음을 차단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축된 소음중화시스템은 백색소음을 이용하는 방식이다. 백색소음이란 일정 주파수 대역에서의 음압 소리를 말한다. 소음중화시스템은 백색소음을 이용하여 사람이 가장 듣기 편한 소리를 음압으로 발생시켜 주변의 다른 소리들을 차단 시킴으로써 소란스러운 소리를 덜 인식하도록하고 소음에 대한 민감도를 개선해 주는 시스템이다.

시립중앙도서관에 따르면 그동안 중앙도서관은 지난 2014년 현재의 자리로 이전한 이후 늘어나는 이용객들로 인한 소음으로 고민해왔다. 특히 인근 초·중·고교의 시험기간과 각종 취업시험이 겹치는 기간에는 소음문제 해결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시립중앙도서관은 "2천 300여만원의 추경예산을 확보하고 최근 열람실 4개소 전체에 소음중화시스템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립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많은 이용객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화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집중력과 학습능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신 장비와 정보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가동 옛 정읍시립도서관 자리에서 현재의 내장상동 벚꽃로로 이전된 시립중앙도서관은 80여억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3천5백㎡(옛 도서관의 3배), 지상 4층 규모로 1일 평균 500여명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열람실은 법정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오전 8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한 종합자료실을 밤 10시까지 개방 운영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 교월동,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 시행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박상문)는 세금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해 지난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무료상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주민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평소 생활속 복잡한 세금관련 문제로 고민하는 주민들을 위해 시행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보다 많은 주민들

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유관기관, 마을회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홍보포스터를 게시하고 직원들 담당마을 주민홍보를 실시하는 등 마을세무사제도 알리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문제를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내용을 마을세무사에게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제도로 먼

저 전화나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진행한 후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와 시간, 장소를 정해 대면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박상문 교월동장은 "마을세무사제도가 보다 빠르게 주민들에게 자리잡아 주민들의 생활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태 기자



부안읍은 김제일읍장을 비롯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직원들이 호흡기 및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모이는 에어런 필터, 침구류 세탁 등 위생점검과 클린활동을 병행했다.

부안읍 경로당 위생·안전점검 봉사활동

부안읍은 김제일읍장을 비롯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와 직원들이 부안읍내 취덕경로당을 찾아 위생점검과 클린활동봉사활동을 펼쳤다.

지난 10일 봉사활동은 여름철을 대비,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안전점검과, 호흡기 및 면역력이 약한 어르신들이 모이는 여가활동장소임을 고려해 에어런 필터, 침구류 세탁 등 위생점검과 클린활동을 병행했다.

취덕경로당 회장 전명원은 "어르신들이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읍사무

소 직원들의 세심한 점검과 청소로 건강하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부안읍에서는 6월말까지 부안읍 소재 등록경로당 72개소에 대해 여름철을 대비한 안전 및 위생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김제일읍장은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려고 최선을 다하며 어르신들의 예로시함을 칭취, 따뜻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부안=이옥수기자